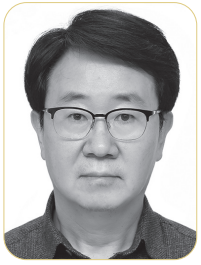
인 사 말



오 세 욱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
국민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인 국민대 오세욱입니다.

새로운 회장님과 임원진이 구성된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 시대에 안녕하셨는지요? 우리 학회는 식품학, 약학, 수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 분야에 가장 전문화된 학술단체로서 정기학술대회 등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상임이사회 등 학회 활동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대 임원진은 회장님을 비롯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코로나 시대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도 있지만, 향후 식품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연구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포스터 코로나 시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잘 구현되고 관련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늘 깨어있는 집단이성으로 역할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이사분들 및 학회 구성원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장 최선의 학회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17대 임원진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학회의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식품위생안전성 연구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학술지의 세계화를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학회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3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86년 창립된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식품안전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고의 학회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정책 발전에 기여 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더욱 발전하는 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처럼, 가감 없는 비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회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학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